

긴 · 급 · 진 · 탄

# 위험한 민중주의의 유혹



공병호 박사

## ▲ 다수의 이름으로, 본능에 호소하는

월드컵의 열기나 온 나라를 휩쓸어 붉은 악마들의 함성이 드높을 때 나는 한편으로 자부심을 가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했다. 그 힘은 건설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대단히 파괴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걱정한 것은 대중의 결집력이 민중주의(populism)로 변질될 가능성이 었다.

한국이 앞날을 내다보고 싶다면 급속히 부상하는 위력적인 민중주의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민중주의의 본질을 꿰뚫고 그 폐해를 일찍부터 경고해 온 사람은 복거일 씨다. 그는 『민중주의를 막아내는 길』이라는 책에서 우리 사회의 앞날을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근년에 보인 ‘좌경

화’는 실은 민중주의의 득세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대학에 다닐 때 마르크스주의에 깊이 젖은 세대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핵심 세대들이어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에서 나왔다. 마르크스주의는 본질적으로 단순주의적 이념이다. 그것은 이 세상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파악하고 아주 또렷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그런 설명을 외치기 좋은 구호들도 만들어서, 신봉자들에게 그런 구호들에 따라 행동하라고 요구한다. 자연히, 마르크스주의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지적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로버트 노직이 지적한 것처럼, ‘마르크스주의 착취는 주로 사람들의 경제학에 대한 무지의 착취였다.’

마르크스주의에 바탕을 둔 ‘공산주의의 실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지금, 누구도 마르크스

주의 정책들을 드러내놓고 추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갖추는 젊은 시절에 마르크스주의에 깊이 젖은 사람들이 뒤늦게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을 버릴 리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주의적 세계관이라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와 동질성을 지닌 민중주의는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본래 사회문제란 그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의 원인과 앞뒤를 찬찬히 따져봐야 하고 어떤 선택이 끼치게 될 간접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한마디로 ‘쿨’ 하게 문제를 접근해야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다. 특히 젊은이들은 자신의 미래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상황조차 요모조모 따지고 전후 사정을 파악한 다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시장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정책은 일반인들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쌀 개방으로 농민이 어렵기 때문에 쌀시장을 보호해야 하고,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가 전후 사정을 충분히 살핀 논리보다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전자가 우리의 본능이나 직관에 더 맞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접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고, 여러 사람에게 효과가 나누어지는 정책인 경우 사람들은 본능이 원하는 대로, 막연히 감이 느껴지는 대로, 구호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게 된다. 복거일 씨는 이렇게 경고한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민중주의적

정책들이 불러오는 비효율은 엄청나며, 이런 비효율을 줄이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불행하게도, 그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민중주의는 늘 인기가 높다. 그것은 민중이 큰 관심을 가진 문제들은 논점으로 삼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고, 또렷하고, 이해하기 쉽고, 직관에 맞는 정책들을 내놓는다. 무엇보다도, 그런 정책들은 구호들로 표현하기에 아주 좋다.

보통 사람이라면, 사회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자신에게 투자를 할 만한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 만일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것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돈을 투입할 것이다. 그런 투자는

직접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정책의 옳고 그름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투입할 여력은 거의 없다.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는 일에 시간과 돈을 들이는 일은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는 차분히 읽고, 자신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 아니다.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믿는 대로 따라가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보통의 한국인들은 자기주장이 무척 강한 편이고 좀처럼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어떤 권위도 잘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근래에 들어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특정 사회 이슈가 현안 과제가 되면 논리나 사실, 지식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과 감정 혹은 감성이 훨씬 큰 역할을 한다. 막연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마도 그럴 것이라는 것에 근거해 자신의 주장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게다가 직관, 감정, 감정에 적과 아군을 나누는 이분법까지 더해진 사람들은 함께 모이는

데 과거처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해 공감대를 나누는 사람들끼리 사회 이슈에 대해 과감하고 용감하게 발언할 수도 있다.

흔히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은가? 타도해야 할 적이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되면, 일단 무리를 이룬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논리도 생산해 낼 수 있다.

### ▲ 정치인은 민중주의를 먹고 산다

나는 앞으로 정치적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특별히 투자할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리라 보고 있다. 물론 그들은 이용이라는 말을 절대 입에 담지 않을 것이다.

세월과 함께 이런저런 경험을 한 나이 든 세대들은 웬만해서는 감언이설에 속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정치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

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이미 배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단순한 구호나 슬로건으로 동원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무척 좋은 동조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젊은이들은 인터넷에 익숙하다. 민중주의는 인터넷이라는 막강한 현대판 병기를 갖게 되었다. 일부 정치인들이 결코 이를 놓칠 리 없다. 인터넷이라는 장에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는 비용도 시간도 별로 들지 않는다. 게다가 대중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들을 움직이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상품화하는 데 발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한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다른 모든 요소들을 배제해 버리는 전형적인 단순주의를 충분히 활용하게 될 것이다.

지난 3월 12일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 사태만 해도 그들은 ‘의회 쿠데타’라 명명하며 단순주의를 활용했다. 게다가 텔레비전



으로 방영된, 의사당 내부의 박해받는 소수 이미지는 이미 승자와 패자를 확연히 나누고 있었다. 야당은 그것을 뒤집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탄핵에 따르는 모든 오명(汚名)을 덮어쓴 채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민중주의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한번 허용한 권리를 빼앗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양산하는 입법과정은 신중해야 하거늘 그런 법안들이 속속 통과될 것이다. 또한 민중주의에 따른 정책은 대부분 반(反) 시장적이고, 고비용을 유발하는 것들이다. 경제의 역동성 저해라는 막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사회과학이 그렇듯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중들의 잘못된 판단은 계속될 것이다.

나는 정치인들에게 큰 기대를 갖지 않는다. 그들 역시 사적인 이익에 크게 좌우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드물게 사적인 이익보다 공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코 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역량을 직위를 유지하고 정권을 쥐는 데 집중한다. 앞으로 이들은 민주주의를 이용할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국익의 이름으로 여론을 의도대로 만들어낸 다음 수많은 정책들을 입법

하게 될 것이다.

정치인들에게 기대할 게 별로 없다면, 민주주의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의 양식과 지성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막는 길은 참으로 험난하다. 민주주의적 주장은 감성과 직관에 호소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부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소수에 대한 사회적 박해와 민주주의가 결합하는 경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교묘하게 포장된 증오감은 민주주의의 도움을 받아 소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창조적 소수는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지만, 그들은 늘 수적으로 적다. 그리고 그들은 대개 다수와 다른 길을 걸어간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한 구호나 슬로건을 걸고, 활발하게 펼쳐질 것이다.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앞날에 대한 복거일 씨의 이야기를 들어봐.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

서 민주주의를 막아내는 일은 겉으로 힘들다. 원래 민주주의란 큰 호소력을 지닌데다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세고 목청이 높은 세대들이 민주주의를 따른다. 반면에, 다수에게 호소력이 큰 민주주의적 접근에 담긴 논리적, 사실적 오류들을 지적하고 민주주의적 처방이 불러올 문제들을 드러내는 일은 보답이 그리 크지 않고, 으레 도덕적 고지를 선점한 민주주의자들로부터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래도 민주주의를 막아내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아니, 민주주의의 물살이 거세수록 그것의 폐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중요해진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길은 사회문제들에 튼튼한 이론적 바탕을 갖추고 자유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길뿐이다. ●